

독자 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기 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 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 독자 마당

·보낼 곳: 우(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02)732-4162  
·팩스: (02)737-0698  
·천리안: aem  
·하이텔: 34713

## 군승단 재정·인사비리 감사제 도입 등 대책을

나는 춘천 모부대에 있는 군법당엘 다니고 있다. 집에서 가까워서 그렇지만 포교의 황금어장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군장병 포교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겠다 싶은 소망에서다.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법사님들을 믿고 따라왔는데 얼마전 군승단내 불사 및 인사비리의혹 등 문제가 산재해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 신도들이 불사에 사용하라고 모아준 공금을 횡령하다니 부끄럽고 충격적인 일이다.

군승단은 해당 법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물론 군법당내 재정 감사제도를 정책적으로 실시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법사님들은

이번 일들을 계기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 우리 신도들이 신뢰하고 불법에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로서 더욱더 귀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청정심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 석굴암 보호 유리벽 자비심 차단한 느낌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우리의 손길과 차단된 곳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석굴암이다. 석굴암은 예배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중시해 조성한 곳이지만 마치 진열장의 마네킨처럼 유리로 막혀 있어 가까이 가서 볼 수 없다.

박물관에 놓여있는 불·보살상만 해도 유리상자 안에 전시돼 있어 천진난만하거나 자비로운 미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경전의 말

씀이 멀게만 느껴진다. 문화재는 단순히 사람들과 격리시킨다고 해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사는 집의 경우는 옛날처럼 군불을 때고 사람이 살 때 오히려 무너지지 않고 영구히 보존된다고 한다. 석굴암도 마찬가지다.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때 더욱 생명력을 발휘할 것이다. 완전히 차단하기 보다는 창덕궁과 같이 관람객을 부분제한해 자연스레 문화재에 호정심을 길러 나가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김근삼 <서울 강남구 대치동>

## 스님들의 운세광고 교계신문 신지말자

요즘 모 일간지를 보다보니 정○○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낸 운명, 철학을 봐 준다라는 '운세' 광고가 눈에 띄었다. 놀라운 것은 얼마전



## 스님설법에 추위도 잊고...

14일 개원을 앞두고 있는 성북동 김상사에서 회주 법정스님의 법회가 있던 날이었다.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1천여 명의 불자들이 법당을 가득 메웠고 상당수가 법당 밖에서 1시간을 넘게 서서 동참했다. 다리도 아프고 쌀쌀한 날씨에 어깨가 절로 움츠러들게 만든 수축에 스님의 법문을 꼼꼼히 적는 모습에서 참불자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신문지상에 바로 이 정○○ 스님이라는 분을 사기혐의로 찾는다라는 광고가 났었다. 혹시라도 불자가 아닌 다른 동료들이 불가봐 얼른 덮여버린 것지만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사주팔자를 봐 주겠다고 광고를 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니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간

수치스럽지 않았다. 불가에서는 그것은 분명 사법이고, 파계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빨리 광고계재를 중단해 주길 당부드리며, 광고효과가 커 어쩔 수 없다면 '스님'이라는 명칭을 뺄 것을 제안한다.  
박정갑 <서울 중로구 안국동>

## 현대불교를 읽고

### 법회사진 게재 신중하게

현대불교 149호 5면에 어색한 모습의 법회사진이 게재됐다. 10월26일 수도방위사령부 중정사에서 열린 호국영령위령대법회의 보도사진이다. 이날 행사는 법회중 중정스님을 비롯 총무원장스님과 수도방위사령관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룬 것으로 보도됐는데 문제는 사진에서 마치 사령관을 중심으로 큰스님들이 앉으신 것처럼 보였다.

나만의 편견일 수도 있지만, 행사 내용이 법회인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큰스님들께 대한 예우는 불

자들 스스로 지켜야 불교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서현 <용진정보 전문이사>

### 신행단체 연락처 표기를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기존의 신행단체와 신생 모임의 행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기사에 연락처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저 기사 읽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업성을 띄지 않는 단체, 시설, 모임이라면 연락처까지 표기해 많은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다면 더욱 유익하리라 본다.  
장동근 <대구시 동구 반야월>

## 궁금합니다

### 다비후 유골 어떻게 처리

큰스님들이 입적하시면 다비식을 하고 다비식 후에는 시리를 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리 외의 유골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최유림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신은 지수화공(地水火風) 사대(四大)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님이 열반 하시면 화장(火葬)을 통해 근원으로 돌려보냅니다. 일반적으로 화장 후 남

은 유골은 습골한 후에 곱게 빻아서 오방(五方)으로 뿌리는 산골을 행합니다. 사리가 나올 경우 사리는 습과하여 사리호에 담은 후 부도를 세워 그 속에 안치합니다. 사리에 있는 부도전이 그것입니다. 부도 옆에는 스님의 행장을 새긴 공작비를 함께 세워 후인들이 기리도록 합니다.

김경호 <조계종 포교연구실과장>  
대전서 불교방송 들으려면 유성 혹은 대전에서 FM 불교방송을 들을 수는 없나요?  
<천리안 ID: TOMTOM2>

현재 불교방송은 서울 외 4곳에 지방국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교방송을 들으려는 타지역 불자들의 민원이 높아 불교방송에서는 계속 정부에 지방국 설립 허가요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허가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은 춘천 강원 대전 전주 등 4개 지역과 충주 진주 강릉 울산 제주 등 5개 중계소입니다. 이 설립안이 통과되면 유성·대전 지역에서도 불교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김종국 <불교방송 방송상무>

# 만화 100유년

**때늦은 흥내**  
옛날 명절이나 경사가 있는 날에 부녀자들이 꽃으로 머리를 장식하는 풍습을 가진 나라에서 어떤 가난한 사람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우담화(優曇華) 인도에서 삼천년에 한 번씩 핀다는 상상의 식물

이빈 명절엔 다른꽃 보다 우담화를 구해 주세요

뭐웃! 우담화(優曇華) 꽃을...

그 꽃은 아무데나 있는 꽃이 아니고 궁궐 연못가에에만 있는 꽃인데

그 꽃을 꺾다가 들키는 날이면 죽음을 면치 못해요

만일 우담화를 구해 주지 않으면 당신과 같이 살수 없어요

그 남편은 전부러 원앙새소리 흥내를 잘 내었다

그래!

궁궐 연못엔 원앙새가 있으니까 그 소리를 흥내 내면서...

남편은 꿀 궁궐 연못으로 숨어들어 꽃을 따기 시작했는데...

거기 연못가에 누구야?

에, 나는 원앙새입니다

잉! 원앙이 말을 해?

잡았다 꽃 도둑놈!

미친놈! 원앙새 흥내를 내려면 미리 내어야지 지금 내서 뭘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아 평생 온갖 악업을 다 짓고 나서

죽을 때 가서 비로서 이렇게 말한다

죽기전에 착한 일을 한 번이라도 하고싶다

이제 마쳐 연못지기에 집고 나서야 원앙새 소리를 흥내낸 어리석은 이와 다를 바 없다

## 신도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신선한 自然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美! 이제 세안·샤워할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 한방재료추출물 (오미자,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도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대인, 신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켜,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의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강원대학교 축신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현 세면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신성국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 회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한방재료를 첨가하여 만들어진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

(주)씨·티·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내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